

9월 14일 일요일, 『엑시빗』 1호 참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동체를 모색하며.

\* 1호 참여자 김지영, 안수민 님은 개인적인 일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응해 주신 분들, 아쉬운 마음 나눠 주신 분들께 아울러 감사 인사 전합니다.

## 2. 전시 말하기 (2) – 합의와 가치 기준의 문제, 이대로 괜찮나

강재영, 강지웅, 고근호, 이연숙(리타), 표민홍, 허호정, 황웅태

웅태 '포럼에이'식의 게시판은 인터넷 도입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어떤 '환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동 웃음). 지금 운영되면 악성 민원인들만 활동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비판' 중엔 민원처럼 보이는 불평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동 웃음). 전시든 기금이든 제도든,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다. 한편으로 비판은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판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스스로도 '나는 지금 민원인인가, 민원인이 아닌가' 이런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저도 아마 같은 이유로 문제의식을 글로 다 옮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이 불쏘시개로만 작동하길 원하지 않으니까. 모두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의 단계라는 걸... 고심해보는 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웅태 '비판을 자기에게만 돌아오는 방식으로 사유화한다'는 생각이 드는 글도 종종 보게 되었던 것 같고요. '민원'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민홍 그런데 저는 안 좋은 전시를 보면 화가 나요. (일동 웃음) 비평적인 관점 이전에, 전시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시를 마주할 때 그래요. '이게 다인가? 이렇게 끝난 건가?' 싶은 순간이 있죠. '미'의 기준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형태일 수 있고, 쓰레기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시를 보여주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을 지시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느끼는 ‘화’는 어쩌면 그런 다양한 모델을 해석하지 못 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시를 전시로서 접근조차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 때, 그것마저 (전시의) 의도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

호정 그러니까, ‘전시’ 자체에 대한 공통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민홍 그렇죠. 어떤 틀이 작동을 하기 위해선, 그걸 규정하는 룰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시장 비상구 같은 것. 전시장에서 비상구를 가려놓는 경우가 꽤 있어요. 위급시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게 비상구이고, 그걸 가리는 건 법적으로도 금지된 행위거든요. 근데 전시를 위해 이걸 가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법과 안전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전시가 뭐지? 이 사례는 너무 극단적인 것이긴 하지만, 전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기준과 이유를 모르겠는 경우가 허다해요. 전시장 한 가운데에 단지 리플렛 비치를 위한 테이블을 둔다든지.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 보여요.

연숙(리타) 저는 이 의견이 단지 불평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이것이 정확한 동시대적인 진단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된 ‘합의’가 아예 없음. ‘룰’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신생공간에서 출발한 세대, 또는 우리 세대, 혹은 우리 이후의 세대가 창출한 어떤 재미와도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통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의 미술 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카오스’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카오스의 감각을 매번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방문한 한 전시장의 서문이 떠오르는데요. 그 서문이 활자 실험의 일종으로 만들어져서 글을 읽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 경우에, 저는 눈도 안 좋고... 말 그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접근성’ 차원에서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논의되는 이 ‘룰’이 왜 필요한가 하면, 최소한의 배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미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룰. 단지, ‘어려운 글 좀 쉽게 풀어 써,’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미술이 갑자기 ‘인간’에 앞서 버리면—저는 미술이라는 게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글이 읽을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다거나, 디자인 차원에서 너무나도 배려가 없는 전시들을 종종 목격하는 거죠. 그럴 때면 저도 좀 화가 나요.

웅태 최근에 제가 화가 났던 일은 물리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전시 서문을 QR코드로 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제 핸드폰이 성능이 안 좋아서, 코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말고도, 기기 조

작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호정 서문 QR코드로 배포하는 게 종이를 아낀다는 취지도 있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것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것들을 누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합의의 층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재영 작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가이드가 QR 코드와 AR 형식으로 배포됐어요. 핸드폰을 작품이나 코드에 대면 가이드가 나오게 돼 있었거든요. 이외 형식으로는 가이드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전시장 들어갈 때부터 휴대폰에 배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화면과 카메라를 계속 켜 상태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결국 전시 중에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민홍님이 전시에서 화나는 지점을 다 잘 정리해가지고 뭔가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호정 막간 홍보. 엑시빗에 X-file 꼭지가 있습니다.<sup>1</sup> 매 호별 주제와는 좀 달라도, 민홍님이 전시의 조건들을 건들며 만드는 꼭지예요. 서울 미술 씬의 제반 조건이 될 수도 있겠고, 전시라는 것을 위한 룰 자체에 대해서도 수도 있겠고요.

앞에서 한 말 좀 이어가서, 좋은 전시를 좋다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 본다면, 게시판이 가능하기도 할까요?

연숙(리타) 근데 뭔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좋다’는 말 그 이상으로 가능할까요? 칭찬을 서로 잘 안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좋았어요’는 뭘까요? ‘너의 취향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돌아올 거고.

민홍 그러니까요. ‘좋다’는 감상은 정말 개인적인 거죠. 내가 좋았던 것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또 다른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좋다는 게 도대체 뭘까?’하는, 답이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전시가, 작품이) 좋은 건 디풀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일동 웃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창작물을 내놨어요. 근데 그게 안 좋으려고 내놨겠어요? 작가에게는 어떤 ‘좋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짧게는 1년, 누구는 2-3년 작업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를 선보였을 때, 그것이 ‘좋다’고 상정하는 게 기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나서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게 의미 있고 재밌는 일이 될 텐데, 다만 ‘좋음’을 표현할 언어

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게 늘 고민이에요.

연숙(리타) 비판이랑 마찬가지로, 좋다는 서술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단서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싫었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단서를 잘 발견하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이런 걸 평가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뜻인 것 같아요. 그건 분명 책임이 따르는 일인데요.

‘좋음이 디플트여야 한다’는 말은 현재의 전시 환경과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은 100% 자기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작업을 하고 또 전시를 만들고 싶을 텐데요. 저로써는 그러기 위해선 작가들이 한 전시 만드는 데 2-3년 정도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사실은 프리즈-키아프-아트워크의 이 끔찍한 소용돌이에 불이 붙은 상황 속에서, 또 기금 전쟁 속에서, 모두가 정말 하기 싫어도 어쨌든 내년을 생각하며 지원서 쓰고 행사 참여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숨가쁜 호흡 속에서 작가는 과연 100%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들 수 있나 하는 점이 저는 우선 의문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자기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작가들은 일부러 은둔을 택하기도 하고 후퇴를 택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운영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개 기금을 걸쳐 결국 2-3년 들여 하나를 완성한다든지요.

결국 서울에서 미술을 볼 때 이런 정황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관객의) 80% 정도는 이런 여건을 감안하고 보지 않을까,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이 작가가 원했던 최상의 아이디어 구현 상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슬픈 상황이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웅 저도 연숙님 얘기에 공감이 가는데요. 이번 프리즈-키아프, 그리고 아트워크까지... 돌아보면서요. 심지어 9월 한달을 통째로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고요.<sup>2</sup> 이 기간 반복적으로 보이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근데 이들이 거장으로 불리거나, 누가 봐도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작가들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이잖아요. 게다가 몸이 3개가 아닌데, 3개 프로젝트를 3일 안에 해야 하는 식인 거예요. 이런 스케줄이라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한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작가 본인이 직접 현장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설치라든지 리허설이라든지... 이런 때에 가능한 선에서 업무를 대신할 동료들을 동원하기도 해요. 많은 경우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인연으로 상부상조로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야말로 해당 기간에는 ‘다같이’ 소진되는 거예요.

저는 관객으로만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앞서 연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모든 정황을 계속 감안하게 돼요. ‘아, 저 사람 저게 가능한가?’ … ‘도대체 이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요. 근데, 만약 내가 그렇게 (주요 행사에) 불림을 받는다면 거절할 수 있나? 저는, 그냥… 어… 이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측면을 많이 생각할 거고요. 이 부분 역시 동료들의 작업을 보는 데 감안하게 되는 요소예요. 작품 퀄리티는 진짜 많이 낮아지고… 관객은 인스턴트한 작업들을 계속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작가 당사자로서도 당연히,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는 어떤 고민 없이 주어진 일을 해내고 쳐내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좋지 않더라도, 어떤 구조 안에서 계속 기계처럼 작동하는 몸을 많이 봤어요. 이건 작가뿐만이 아니라, 사실 프리즈 기간 행사에 연루된 기획자들이나 종사자 분들 모두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되게 급작스럽게 제안이 오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행정적인 과정에서나 실질적인 구현 과정에서의 빈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아까 리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채 주어진 역할을 각자 충실히 해내고, 그 와중에 다 같이 갈려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증발돼 버리는 일들.... 사라지는 거죠.

호정

민홍님, 연숙님, 지웅님 얘기 쪽 연결해서 듣게 되네요. 사실, 앞서 민홍님 얘기에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작업 하나 나오는 데 2-3년 투자해서 좋은 결과물 내보이는 게 기본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이런 속도를 가진 사람도 분명 있어야 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나한테 프리즈 행사하자고 하면,’ 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 상황도 문제적이에요. 제 입장에선, ‘나 안 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판단을 갖는다고 해서, 참여한 사람한테 ‘너는 했더라?’라고 책망할 수는 없죠. 반대로, 나는 이 정도 ‘퀄(리티)’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뻔히 그게 불가능할 걸 아는 상태에선 ‘참여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속도와 다른 속도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비판과 조롱을 하는 것 같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작업의 완성도 등 ‘기준’이 있고, 그 다양한 기준에 맞는 다양한 속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함께 이 ‘계’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서 이걸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좀 더 좋은’ 차원으로 가자는 제안도요. 기금 지원 안 하는 사람, 주어진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팔자 좋은’ 얘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아까 연숙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준 없음의 ‘카오스’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 판단에도 뭔가 의문이 드네요. 어쩔 수 없다면, 그 어쩔 수 없음은 누가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최근에 되게 많이 던지게 됐어요. ‘나는 여기에 참여하게 됐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라는 태도를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음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이 ‘좋음’에 대한 공통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다같이 갈려 나가도록 하는 환경적 정황도 너무나 알겠고요... 직접 해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갈려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지웅 네, 나중을 모른 채 그걸 승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뭔가 맘에 걸려요. 저도, 《젊은 모색》에 관해 글을 쓰면서도, '너 그럼 《젊은 모색》에 불러줘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어요. (일동 웃음) 애초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내 차례가 오면 난 거절! 난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웅태 그때가 오면 기만의 처세로 대처하면 되잖아요...! (일동 웃음)

근호 농담 반인데, '커리어주의'가 다 이런 걸 만들었다...!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기준은 '나 진짜 멋있는 거 해야지'라는 것보다도, '나 여기 있어'인 거죠.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호정 맞아요. 참여가 대체한 그 '멋있음'. 그러니까 이제 멋있음에 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걸 낱두지 않잖아요. '나 이거 멋 없어서 안 할 거야. 나는 이게 멋있어서 할 건데?' 하는 그 절대적 주관성을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그걸로 뭘 했는지, 참여가 뭔가를 보증해야 하는 거니까.

연숙(리타) 하지만 저는 어느 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걸 고수하게 되는데요. (욕망과 생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작가들한테 요구되는 게 어떤 처세술인 것 같기도 해요. 상황이 어렵죠. 상황이 어렵고, 특히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작가들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했어요. 무엇을 했지만, 그것으로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완전히 털털 털리고 이제 내장까지 털린 다음에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미 다 연루가 된 다음에야 정황 파악이 되는 일이 파다하고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일에 연루가 됐는데, 어디까지 내가 리스크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다는 점 같아요.

근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호정님, 근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욕망'을 양도하는 건 괜찮나?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의 추구는 포기하고, '상황'에 그걸 양도해버리는 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작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처음부터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을 텐데, 이건(미술은) 명백히 경제적 이익도 되지 않는 일인데, 이걸 하기로 했을 때의 최초의 장면으

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는,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직업이 되기도 했고, 하다보니 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커리어주의라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도 있고요. 사실, 커리어 안 좋은 사람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커리어’ 죽기가 그만큼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엄청난 진창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욕망이 있을 때.... 뭔가 아름답고 좋은 걸 만들고 싶다는 추구와 생존의 상황 사이에서, 필요할 때 ‘Yes’하고, 다른 필요가 있을 땐 ‘No’하는 그 균형을 잡는 기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어떤 점에서는 거의 사기 치는 것과 비슷한 기술이요. 내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런 기술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뭔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때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사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동료 예술계 사람으로서 뭔가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저는 이번 프리즈 때도 여러 상황들에 연루되었던 아끼고 좋아하는 동료 작가들한테, 꼭 한 소리 하고 싶거든요. 제 나름의 돌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요.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작가들이 외상을 입는 일이 되게 사소하게 취급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작가니까, 그 정도는 견뎌야지’ 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런 방관은 마치 산업재해 현장인 걸 알고도 거기 사람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은 좋아서 한 거야’라고 치부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걔는 욕망에 충실한 거야’, ‘작가니까’,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라는 말이요. 누군가를 엄청 위험한 현장에 내보내 놓고, 다들 괜찮다고 얘기하는 문화가 괜찮은가.

근호

저는 약간 이상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시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것을 고수하자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좋다고 말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면, 공통의 ‘멋있다’는 감각이 어느 정도라도 생겨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환상 같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내 작업과 전시를 좋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고양감이 사실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때의 고양감으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고도 생각하고요, 작가로서. ‘좋음’을 얘기하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사실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동안 좋아하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와 나(보는 사람)의 세계가 다른데, 어느 순간 나의 세계에서도 좋은 게 동기화 되면, 그 순간이 좀 특별하고요. 그 특별한 거를 만약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또 좋은 일이고요. 그게 커리어주의의 반대편에서 ‘멋짐’의 환상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웅태

저는 멋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하면 ‘어? 나 지금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된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웃음) 이를테면, 저는 좀 뭐랄까, 남성들이 멋있음을 추

구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사라진 거 같거든요. 로이더, 군인, 경찰, 폭주족 이런 거밖에 선택지가 안 남은 거 같은데.... (일동 웃음)

미술에서도 멋의 다양성이 되게 협소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전시 공간들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굉장히 쾌적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공간들은 늘어가는 한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간지'를 추구하는 공간들은 드물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데요.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나는 (전자의) 인스타그래머블한 작업/공간들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실제 그런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멋'을 생각하는 나의 감각이 구태의 무엇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민홍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 쉬워졌고, 이제는 누구나 이미지 생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미지는 선택에 따라 내 휴대폰 속에 잠든 채로 남거나 혹은 밖으로 끌어여져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멋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함께 흐려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꽤 보수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데요. 미술의 언어 안에서는 여전히 '멋지다'의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미술의 문법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것이 '작품이다', 또는 '전시의 일부이다'라는....이럴 때 더욱 기본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숙(리타)

지금 이 대화에서 민홍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준' 자체를 제시한다기보다는 타협과 애매함의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후자에 동의하는데, 공간들이 멋짐을 추구하지 않고 애매하게 그 공간을 내버려 둬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호정

민홍님은 두 측면의 문제제기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적 가치판단 기준이 없어진 것, 그래서 그런 가치판단을 어느 선에서도 맞춰보자, 라는 얘기. 근데 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합의된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자체도 무너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

(민홍님이 쓴) X-file에서는, 우리가 전시를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전시구나' 라며 동의할 형식적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또 그런 질문도 생기는 거죠. 단지 전시를 전시이게 만드는 형식 이상으로, '멋'이라고 할지 '좋음'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어떤 가치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진짜 와해된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을 개별적인 차원에서라도 각자 가지고 있다면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얘기도 또 같아 하는 중인 것 같고요.

재영

얘기를 쭉 들으면서 동의하고 공감 가는 부분들을 조합하면서 혼자 생각을 쌓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의 기준은, 웅태님 말씀처럼 더 간소화되고 압축되고 손실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논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미술에서조차 그렇죠. 우리가 '현대 미술' 하면, 사회적이고 미적인 기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왔던 것 같은데요. 혹은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기(미술계)라고 보잖아요. 여기로 흘러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 바깥에서 어떤 빈틈들을 가시화시키고 싶어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한때 미술의 주요한 미덕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의 사소한 좋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양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근데 이제는 그 바깥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좀 전에 웅태님 말씀에 정확하게 공감하면, 공간들이 색깔을 추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자기 색깔을요. 결과적으로 미의 기준은 더 협소해지고, 그 있을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는 거죠.

이 기준들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좋은 것들을 말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이게 좋은 거야', '좀 이상해 보여도 되게 재밌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떤 방식, 형식으로 제시해내야 되는가에 관한 최소한의 약속도 그래서 필요하고요. 이 역시 분명하게 논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마포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전시된 작품에 앞에 놓인 스프레이로 관객이 그림에 칠을 해버린 일이 있었잖아요.<sup>3</sup> 이런 상황이 지금의 일종의 아노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미술 관계자가 아닌 일반 관객들이 점점 미술을 찾아 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포의 조그마한 갤러리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꼭 관객에 통제가 필요한 것인가 물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과 소통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과거의 어르신 비평가 방식으로 '넌 이제 끝났어'라는 호통형은 아니더라도 어떤 크리틱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과거의 소통 방식은 하여튼 온당하지는 않았는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섬세한 소통의 크리틱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거 같아요.

연숙(리타)

맞아요.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호통 치는 비평가 모델은 주류 담론장이라고 할 만한 공간에서 다 이제 휩쓸려 나가게 됐죠. 사실 그 모델의 역사적 역할들이 있는데 검토 없이 무작정 쓸려나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언젠가 또 재검토돼야 될 거고... 비판에 관해서는, 미술대학에 만연한 비난과 노이로제, 쿨한 리액션 사이에서 뭔가 조율이 돼야 겠죠. 그런 차원이 이 엑시빗이라는 기획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공생하는 관계의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서 여러 분이 얘기하신 거를 들으면서는, 뭔가 갈래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멋짐’ 모델에 대한 이야기, 공간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이야기, 전시 접근성이나 전시 관람 매너 등 어떤 합의에 대한 이야기, ‘미’와 ‘형식’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세분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정체성과 형식이 내적으로 완결성이 있을 때 그게 ‘좋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다들 생각하시는 게 다를 것 같긴 해요.

근호

결국 문제는 약속, 룰, 합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쓴 안에도 ‘동네’가 엄청 다양하다는 점도 있어요. 각자 바라보고 있는 동네, 평상시에 각자가 속한 동네가 되게 다양한 거요. 그쵸? 각자 전시 열었을 때 상정하는 관람객 구성도 다르고 파편화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프리즈 같은 행사가 열리면 이 무수한 동네들이 한 번에 짹 모이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그래서 이 응집력에 비해서 쓴을 일구는 동네들은 너무 많으니까 더 분열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전시 형식이나, 그걸 위한 약속, 아니면 어떤 가치들이 한 점에 모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호정

한 동네, 만들 수 있을까요?

1

표민홍, 「기능하는 전시」, 『엑시빗』 1호: <https://xhibitions.kr/issue01/09.pdf>

2

‘대한민국 미술 축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2025 대한민국 미술 축제’는 주디자인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아시아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키아프 서울 · 프리즈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 · 연계 ·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입니다. 2025년 9월, 대한민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미술축제에 함께하세요!”: <https://www.k-artfestival.com/>.

3

염정인 기자, “전시 작품에 래커칠 ‘인증샷’ ... 작가 “경고 했는데도 낙서””, 『이데일리』 (2025-09-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2966642295856&mediaCodeNo=257>